

# Jill Stuart

맨하탄에서 나고 자란 뉴요커이자  
뉴욕스타일의 로맨틱시즘을 펼치는 디자이너





# About her

- 패션 디자이너 질 스투어트는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패션과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.
- 그녀의 아버지는 해외에서 꽤 유명한 "Mister Pants" 라는 여성 어페럴 회사의 오너이다.
-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 패션의 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탄 패션거리를 다니면서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.
- 그녀는 겨우 15살때부터 주얼리, 핸드백등을 만들었고, 또한 각종은, 가죽 악세사리를 뉴욕에 있는 Bloomingdale's 백화점에서 팔았다. 질 스투어트는 공식적으로 1993년 여성의류 컬렉션을 통해 데뷔를 하게 되었다.
- 질 스투어트는 최초 데뷔시 매우 파격적이고 섹시하면서 진보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그후 꾸준히 많은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.